불법 정수 담은 종단본 〈불교성전〉 전국 보급 첫 발

중앙신도회, 5월 15일 '법공양 불사' 선포식

챌린지 · 나눔캠페인 전개
1인당 3명에게 성전 선물
원행 스님 "위 없는 공덕"
불교언론기관 업무협약도

송지희 · 노덕현 기자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조계종 종단본 〈불교성전〉의 전국적 확산을 이끌 법공양 불사가 첫발을 내딛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5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선포식'을 개최했다.

법공양 불사는 〈불교성전〉 챌린지 '법보시를 올립시다'를 주축으로, 군법당과 교정시설, 병원법당 등에 〈불교성전〉을 전하는 나눔캠페인, 손글씨 공모전과 독후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챌린지는 가족과 친구, 동료 등을 지목해 〈불교성전〉을 선물하고 선물 받은 사람은 챌린지 인증샷을 전송하고 다음 동참자 3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눔캠페인은 1차로 선정된 군법당 등 183개 기관에 각 10권씩 법공양하는 방식으로 후원을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과 정충래 · 김상규 수석부회장, 최상원 직할교구신도회장, 김남명 제25교구신도회장 등 주요내빈, 〈불교성전〉을 제작한 남배현 조계종출판사 대표와 불사를 함께 이끌어 갈 불교신문 사장 정호 스님, 김재진 현대불교신문 대표,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이선재 BBS 대표, 변대용 불교TV 국장 등 불교계 언론 대표가 참석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선포식 참석내빈들에게 〈불교성전〉을 전달하는 원력보살단 전달식을 통해, 법공양 불사가 부처님 가르침의 확산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종단적 차원에서 편찬을 주도한 첫 종단본 불교성전은 경율론 삼장에 전하는 부처님과 선지식들의 주옥같은 말씀을 새 시대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대중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시도했다는 자체로 의미가 매우 깊다"며 "'불자를 불자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성전임을 알고 나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불교성전 법공양을 올려 단단한 연을 맺고, 나아가 불교성전을 이웃에게 권유하여 수지 독송하게 하는 것은 한량없는 큰 공덕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신도회가 5월 15일 '불교성전' 확산을 위한 법공양 불사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진우 스님은 "중앙신도회가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원력을 세우고 나선 데 대해 깊은 격려를 보낸다"며 "현대인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불교성전은 손쉽게 읽고 독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항시 새기고 가까이 하면서 그 어떤 보배보다 뛰어난 공덕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해 스님도 "불교성전 속 '보현행원품'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공양 가운데 으뜸은 법공양"이라며 "법공양 불사는 단순히 불교성전의 전파 차원을 넘어 삶을 밝게 만드는 운동이다. 법을 전하고 나누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내빈들은 1명 당 3명에게 〈불교성전〉을 법보시하는 〈불교성전〉 챌린지의 첫 포문을 열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국회정각회 이원욱 의원, 이기흥 불교포럼 대표를 챌린지 상대로 추천했으며,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방창덕 포교사단장과 국제포교사회 이재흥 회장, 교정교화전법단 혜오 스님을 추천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법공양 불사 전도선언을 통해 "오늘 불교성전 법공양불사는 단순한 성전을 전하는 것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게 전도의 길을 앞장서 나가겠다"며 "이 자리에서 시작된 법공양 불사의 울림을 전국 방방곡곡 불자들에게 전하며 한량없는 상생의 공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선포식에 앞서 김재진 현대불교신문 대표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 대표와 남배현 조계종출판사 대표는 중앙신도회와 법공양 불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불교성전〉 보급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업무협력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공동주관처의 역할로써 캠페인과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종사 22 · 명사 7명 특별전형 가결

조계종 원로회의, 5월 11일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및 명사 법계에 비구 22명, 비구니 7명의 스님이 오른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5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7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및 명사 법계특별전형 심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안건은 애초 4월8일 66차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자격 여부에 이견이 있어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월했다. 소위원회는 심사결과 대종사 22명, 명사 7명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조 스님(용주사), 각수 스님(월정사), 월성 스님(법주사), 법정 · 옹산 스님(수덕사), 법등 · 혜창 · 법성 · 도진 스님(직지사), 철형 스님(동화사), 효경 · 경선 · 정여 스님(범어사), 지안 스님(통도사), 도법 스님(금산사), 성오 · 진공 · 명공 스님(백양사), 현고 스님(송광사), 무착 · 정원 · 의정 스님(봉선사) 22명이 대종사 법계를 받게 됐다.

또 재희 스님(직할), 운달 스님(마곡사), 대웅 스님(수덕사), 일법 스님(직지사), 도문 · 영운 스님(통도사), 보각 스님(봉선사) 7명이 명사 법계를 받게 됐다. 송지희 기자

봉선사 천년 비밀의숲서 국난극복 염원

5월 11일 상월결사 자비 순례
750여 대중 모여 한마음 발원

햇볕은 따가웠지만 바람은 시원했다. 천년을 지켜온 비밀의 숲에서 불자대중들은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걸음을 이어갔다.

5월 11일 상월결사(회주 자승)와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는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일환으로 '천년 숲을 걷다' 봉선사 자비순례를 진행했다. 본말사 자비순례는 고창 선운사와 합천 해인사에 이어 봉선사가 교구본사로서는 세 번째로 개최했다.

일반인의 발길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숲에서 걷기명상과 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앞선 두 번의 순례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상임이사 성월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 40여 명과 동국대 농구부, 동국대 의료원, 조광한 남양주 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등도 참석했다.


봉선사 자비순례에 나선 사부대중들.

이날 입재식에서는 삼귀의에 이어 회주 자승 스님이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에게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담은 죽비를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의 대독을 통해 "봉선사는 교종 법맥과 선종 기상을 간직한 곳으로 봉선사 숲은 자연의 법석이다. 서로 자연 속에서 탁마하자"고 당부했다. 범해 스님은 이와 함께 "조계종 포교원 차원에서도 전국교구마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맞춤형 순례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천년숲은 일반에 개방되지 않은 곳이기에 고민도 많았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수행문화를 통해 불교중흥을 이끌고 있는 자비순례가 더 오래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곳 천년숲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원했다"며 "오늘 마음껏 걷고 상월선원 만행결사 원력으로 코로나가 극복되고, 전국 본사에서도 자비순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년숲 걷기에 앞서 김남명 제25교구신도회장은 "오늘 불은(佛恩)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걷고자 한다. 국민이 편안히 화합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한국불교 미래가 환히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다"고 발원문을 낭독했다.

입재식 후 대중들은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천년숲길 10km를 포함해 총 13km를 걸었다. 천년숲은 다른 순례길과 달리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산길이었지만 대중들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원력으로 낙오자 한 명 없이 극복했다.

회향으로 연지를 둥그렇게 둘러싼 대중들은 어장 인묵 스님의 회향 축원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한편, 교구본사 자비순례는 대흥사 등이 개최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이날 봉선사 자비순례에는 자비순례가 진행된 동화사(주지 능종), 선운사(주지 경우) 주지 스님을 비롯해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백만원력결집위원회 2기 출범

총무원장 원행스님, 위촉장 수여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에 표창패


조계종 백만원력결집위원회 2기 위촉식.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담보할 각종 불사를 추진 중인 조계종 백만원력결집위원회가 2기 위원들을 위촉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21명 위원으로 구성된 2기 위원회는 백만원력결집불사 활성화를 위해 사부대중의 동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5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기 백만원력결집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기 위원회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위원장으로, 교구본사협의회장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 기획실장 삼혜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 교육부장 서봉 스님, 포교부장 정인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중앙종회사무처 사무총장 우봉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선본사 주지 법성 스님,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방창덕 포교사단장, 이금석 · 이보연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 앞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종단 핵심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 및 승려복지기금 모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종단 불사의 원만한 추진과 승가공동체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원정 승 정 석혜암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법륜, 석우암, 석정호, 석법광, 석종우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 교육원장 석남산 / 기획원장 석담허 /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 의전원장 석법도 / 어산장 석도암 /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 총무부장 석성덕 / 감찰부장 석성보 /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 사회부장 석자광 / 사회부장 석성우 /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 문화부장 석성원 / 포교부장 석보현 /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 지원국장 석해인 / 봉사국장 석성운 /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 포교국장 석성원 / 의전국장 석균중 /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 문화부장 석원종 /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부 장 석지현 국 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원일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지공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성각 /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장 학산(이종길) /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 총무 대각심(김경숙) / 임원 혜명심(박현숙) / 임원 보덕심(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장 묘각(이재인) / 부원장 혜담(이정민) / 국장 불심화(정형숙) / 무용 무애심(박순애) / 연출 원각심(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 울산원장 법광 / 종무원장 성종 / 법사원장 목암
홍보부장 원명 / 부산부장 혜성 / 경기부장 자운 / 전남부장 혜명
구미부장 혜진 / 대구부장 혜련 / 청주부장 혜원 /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 사업국장 종현 / 포교국장 덕운 / 종무국장 종연 / 서울국장 명덕
포교국장 청운 / 통영국장 덕인 / 포교국장 혜림 / 봉화국장 혜정 / 화순국장 보정
삼척국장 정허 / 영천국장 원명 / 통역국장 정연 / 포교국장 혜경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